

‘호남 청년 아카데미’ 미래 혁신인재 육성 자양분

장흥서 ‘에너지전환, 호남의 선택’ 주제 제5기 개강 김지사 “청년 도전 활약 미래 주인공 되도록 지원”

민선 8기 전남도의 역점 시책 중 하나인 ‘호남 청년 아카데미’가 미래 혁신인재 육성에 자양분이 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7일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과 전남을 선도할 미래 혁신인재를 육성하는 ‘호남 청년 아카데미’ 제5기 개강식을 개최했다.

‘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호남 청년이 자존과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과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전남의 대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민선 8기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강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윤명희·박형대 전남도의원 등이 참석해 5기 수강생들을 응원했다.

개강식은 축하 공연, 김영록 지사 인사말, 김성 군수 축사, 도지사과 5기 청년들과의 소통간담회, 교육생 대표 선출 등으로 이어졌다.

소통간담회에서 김영록 지사는 청년들에게 전남의 미래 비전을 직접 소개하고 청년들의 정책 건의사항을 비롯해 고민을 들어주며 격의 없

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 시간을 가졌다.

김영록 지사는 “5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열려 더욱

의미가 크다”며 “청년이 도전하고 활약해 새로운 미래 주인공이 되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5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에너지전환 호남의 선택’을 주제로 11월9일까지 5회 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1회 차에는 개강식과 소통간담회, 조별 네트워킹을 통해 연대를 강화하고 2회 차에는 명사

특강으로 김미경 아트스피치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변화의 시대 리더로 사는 법’ 주제 강의를 진행한다.

3회 차와 4회 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 및 신재생에너지 현장 탐방, 5회 차는 조용민 전 구글코리아 상무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인재’, 지용배 천문학자의 ‘오늘은 달 탐사’ 강의와 수료식으로 진행된다.

5기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 전원은 ‘전남도 청년 서포터즈’로 위촉돼 전남도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등 전남을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된다.

지난해 2월 출범한 ‘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제1기부터 제4기까지 총 3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들은 현재 ‘전남 청년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지난 7일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 개강식’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청년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곡성군수·영광군수 재선거 각 당 후보 윤곽

민주당, 곡성군수 후보 조상래 前도의원 선출 혁신당, 영광군수 재선거 경선 후보 4명 확정

10·16 곡성군수·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할 각 정당 후보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강대광 전 곡성군의원, 유근기 전 곡성군수, 조상래 전 전남도의원 등 3명의 후보에 대한 경선 결과, 조 전 도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고 공고했다.

민주당은 100% 국민참여 방식으로 진행된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조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해 결선 없이 후보를 확정했다.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무소속 후보였던 조 후보를 복당시켰다. 또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인단 50%+관리당원 50%’ 방식에서 ‘100% 국민 참여’ 방식으로 변경, 조국혁신당, 무소속 후보 등과의 본선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은 박용두 전 곡성교육회합연대 대표, 손경수 전 곡성 죽곡면 주민자치 회장 등

을 후보로 100% 국민참여 경선을 치러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9일부터 후보자 등록 절차에 돌입한다.

이 밖에 이성로 전 목포대 교수가 무소속으로 예비후보에 등록했고 민주당 경선 규칙 등에 반발해 탈당한 정환대 전 전남도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경선을 실시해 장세일 전 전남도위원을 후보로 선출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5일 영광군수 재선거 경선 신청자 4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갖고 전원을 경선 대상자로 의결했다.

확정된 경선 후보는 오만평(59) 전 경기도의원, 장현(67) 전 호남대 교수, 정광일(65) 조국혁신당 재외동포특별위원장, 정원식(53) 여성향 일운동연구소장(가나다 순) 등이다.

경선은 9-10일 이틀간 100% 국민 참여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여론조사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2인을 놓고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김진수·김재정 기자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서왕진 의원

“지역 정치 세력 내 혁신 경쟁 펼칠 것”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서왕진 국회의원(비례)이 선출됐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지난 6일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에서 당원대회를 열어 서 의원을 시당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광주시당은 서왕진 후보가 단독 입후보함에 따라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광주 선거인단 2천8명 중 1천331명(76.9%)이 응답했고 이 중 97.8%인 1천1명이

찬성했다. 이날 당원대회에는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정춘생·김재원 국회의원,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 당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서왕진 의원은 시장위원장 수락 연설을 통해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주도로 지역 정치 세력 내 혁신 경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성강 기자

광주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온라인투표

광주시는 8일 “9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 ‘시민광장 광주’을 통해 ‘2025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등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 참여자는 2025년 예산편성 적정성 평가(상·중상·중·중하·하)와 2023년 추진 완료 시민참여예산 사업 17건 중 2건을 우수 사업으로 선정하면 된다.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

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 4월1일부터 5월10일까지 시민들로부터 2025년도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고를 통해 총 292건의 사업을 접수했다. 사업 부서 검토와 참여예산위원회 숙의·심사 과정을 거쳐 총 62건(시정참여형 17건·청년참여형 1건·지역참여형 41건·동단위계획형 3건)의 제안 사업을 투표 대상으로 선정했다. /박성강 기자

광주매일신문이 광주·전남 지역 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소중한 분께 정성을 가득 담아 행복을 전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명절, 결혼식 등 특별한 날 귀한 분께 폐백 음식 등 선물용 답례품으로 김부각을 선물했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프리미엄 수제 부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박진수부각 명절 선물세트

- 박진수부각 선물세트 ●
- 선물세트(소): 3팩 ... 16,000원
4팩 ... 20,000원
- 선물세트(중): 5팩 ... 24,000원
6팩 ... 28,000원
7팩 ... 33,000원
- 선물세트(대): 10팩 ... 47,000원

* 찹쌀김부각 / 찹쌀다시마부각 / 찹쌀카레김부각 선택 가능
* 배송비 3,000원 별도

선물세트(소) 선물세트(중) 선물세트(대)

박진수부각 PARKJINSOO BUGAK 廣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92번길 119-19
TEL. 062-941-8511 / 010-3602-6623